

사과, 위기, 난관...어둡게 출발한 '한국의 국대'

성폭력 파문 여파 선수촌 분위기 냉랭
희망을 약속하는 개시식이 자정대회로
이기흥 회장 "힘들지만 슬기롭게 극복"

태극전사들과 태극낭자들이 한데 모인 그 곳은 평소와 달랐다.

11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농구장에서 진행된 2019년도 훈련개시식은 왠지 어두운 분위기였다. 풀이 죽었고, 사기가 꺾여 있었다. 간간히 웃음꽃이 피어났지만 행사 참석자 대부분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2020도쿄올림픽이 성큼 다가왔지만 한국 체육은 역대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다. 성폭력과 폭력 파문으로 뒤숭숭하다. 여자쇼트트랙에서 촉발된 체육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은 이제 동·하계 전 종목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동·하계 종목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366명을 포함한 체육계 관계자 570여명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선수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로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사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단상에 선 선수단 대표와 주요 인사들의 입에서는 유난히 어둡고 무거운 단어가 많이 등장했다. '위기'와 '난관' 등이 자주 언급됐다. 이 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훈련하는 모든 선수단에 사죄드린다"며 "내년이면 체육회 창립 100주년이 되고, 올해는 100번째 전



‘국가대표팀의 요람’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의 새해 공식 훈련이 뒤늦게 시작됐다. 11일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열린 '2019 훈련개시식'에서 사이클 나아를, 양궁 이우석(선수단 앞 왼쪽부터)이 대표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앞 왼쪽) 앞에서 선서를 하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진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국체육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그동안 체육계가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슬기롭게 이겨내리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은 매년 1월 체육회가 주관하는 연례 가장 큰 이벤트다. 항상 언론에 공개하면서 한국스포츠를 이끌어가는 국가대표들이 밝은 내일과 희망을 국민들에

약속하는 자리였다.

올해는 예년과 확실히 달랐다. 악화된 여론에 비공개 행사로 진행하려 했다. (성)폭력 파문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단을 보호해야 한다는 체육인들의 목소리도 높았다. 인사 난맥으로 거둬 놓여진 진천선수촌장 선임도 맞물렸다. 결국 개최시기를

2월로 연기하게 됐다.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은 국가대표 선수들과 체육인들의 신년인사를 시작으로 체육인 현장 낭독, 선수대표(남자양궁 김우진, 여자 사이클 나아를)의 선서, 체육인 자정결의문 및 체육현안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진천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올림픽이 코앞인데...엘리트 체육 죽일 셈인가”

체육계, 소년체전 폐지 등 정책 반감
“비위근절은 좋지만 초기삼관 테올라”

한국쇼트트랙 '여제' 심석희에 대한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의 (성)폭력 사태로 촉발된 일련의 비위 문제로 한국체육에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주요 정부 기관들이 체육계 비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 ▲합숙(훈련)소

폐지 ▲소년체전 폐지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체육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문제를 반성하고 환부는 도려내야 한다는 점에는 인정하지만 체육계의 상생과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엘리트 체육의 비중을 낮추는 정책에 대한 의문이다.

체육인들은 “즐거이는 체육과 직업인으로의 체육활동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엘리트로 성장하려는 청춘의 꿈까지 짓밟을 권리가 정부에는 없다고 본다. 학원체육 운동부와 합숙소 폐지도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체육계의 입장이다. 한

인사는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전부 태울 이유는 없다”고 꼬집었다. 대한체육회와 KOC 분리의 경우, 정부의 손쉬운 관리를 위함이 아니냐는 주장도 많다.

11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진행된 2019년도 국가대표 훈련개시식에서 체육계의 냉랭한 기류가 확인됐다. 체육회노동조합과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각 회원종목단체 인사들은 자정 결의문을 통해 “각종 비위행위와 성폭력 사건으로 많은 실망을 안겼다. 참담한 심경으로 사죄한다. 정부의 체육 혁신에 적극 참여하겠다”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는 반대했다. 체육회 이기흥 회장도 “(KOC 분리는) 쉽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공론의 장이 마련된 후 논의해도 된다. 남북단일팀, 올림픽 공동개최가 추진되는 지금은 더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논란의 여

지가 남아있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책임론에 대해 “의무를 다하는 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사퇴의 뜻이 없음도 분명히 했다.

신치용 선임 선수촌장도 사견을 전제로 “소년체전은 한국스포츠의 근간이다. 합숙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강한 정신력과 체력, 팀워크를 위해 합동 훈련이 필요하다”면서 “문제 부등과 소통을 해야 한다. 서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수촌 내 숙소동(화랑관) 1층의 일부 공간에 마련된 선수인권상담실을 책임질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겸 체육회 선수위원회 위원장도 “체육인들 스스로 반성하고 낡은 시스템을 버려야 한다. 개혁도 필요하다. 다만 선수 및 지도자들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진천 | 남정현 기자

“국가대표 선수를 보호하자” 선수촌 내 인권상담실 개소

대한민국 체육계는 최근 메가톤급 폭탄을 맞았다. 여자쇼트트랙 '에이스' 심석희에게 지속적인 성폭력·폭행을 가한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의 사태로 촉발된 스포츠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전 종목으로 들불처럼 번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강력한 대처를 주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노태강 제2차관 중심으로 잇달아 브리핑을 열어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도종환 장관도 2019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체육계의 전면적인 쇄신을 약속했다.

대한체육회도 이에 맞춰 ▲성폭력 가해자 영구제명 및 국내·외 취업 차단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조적인 개선방안 확충 ▲성폭력 조사 및 교육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선수육성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등을 조치사항으로 내놓았다.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했다.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의 선수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선수촌 내 인권 관리관 및 상담사를 상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신치용 전 배구대표팀 감독을 선임 선수촌장에 선임한 체육회는 11일 선수단 숙소동(화랑관) 1층의 별도 공간을 활용해 선수인권상담실을 개소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 활동 중인 유승민 선수위원회 위원장과 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인권상담사 한 명이 전담 근무한다.

선수인권상담실은 성폭력 및 폭력에 관련한 상담뿐 아니라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 시에는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즉각적인 신고절차를 진행한다. 진천 | 남정현 기자

편집 | 심송수 기자 sss23@donga.com

나주곰탕
6,000원

대한민국 대표 국밥브랜드

30년 전통! 그 명성과 맛이 성공입니다

2019년 희망과 상생을 위한 특별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외식 창업을 꿈꾸시는 모든 예비 창업자님, 순간의 선택이 기업으로 이어집니다
기존의 국밥과는 비교 불가! 최고의 가격, 맛, 품질로 승부합니다

한우나주곰탕 6,000

한우소머리국밥 7,000

내장탕 7,000

육개장 6,000

갈비탕 10,000

갈비찜 18,000

한우소머리수육 15,000

소곰탕전골 18,000

삼선미 나주곰탕 성공 포인트!
초보자들도 손쉬운 운영 관리로 엄청난 매출, 안정된 수익성을 보장합니다! 20년 외식 경영 노하우와 수많은 고객들로부터 검증된 월빙 메뉴 아이템으로 여러분의 외식사업 성공의 동반자로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100% 본사 직영 물류 시스템이며 생산품목과 식자재를 직접 공급하여 이익률을 최대로 끌어올린 기업형 프랜차이즈 시스템입니다. 같이 호흡하는 본사와 함께 외롭지 않게 정사하세요!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셔서 성공 브랜드와 인기 메뉴로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업종전환/신규창업 환영(무이자대출)

NAVER 삼선미 나주곰탕 | www.naju-gomtang.com | 장사가 안되시면 전화주세요

가맹/취급/대리점 문의 ☎1588-3892